

# 세계 식량 가격 7개월 연속 하락...설탕값 3.2% ↑ '상승폭 확대'

### FAO, 2월 세계 식량가격 지수 발표...전월비 0.7% ↓ 곡물·육류·유제품 등 안정세...설탕은 고공행진 조심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전월 대비 0.7% 하락하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던 설탕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불안 조짐을 보였다.

9일 농업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7% 하락한 117.3포인트(p)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2월(116.5p)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제품,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값을 100으

로 이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2022년 3월(160.3p) 최고조에 달한 뒤 이후 하락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7월(124.6p) 이후 8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가격 지수는 113.8p로 전월(119.9p)보다 비교적 큰 폭인 5.0% 하락했다. 러시아산 밀 수출 가격 하락은 유럽산 등 다른 지역의 밀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대규모 수확이 예상되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국제 쌀 가격은 하락했다.

유제품은 120.9p로 1.3% 하락했고, 육류

(112.4p)와 유제품(120.0p)은 각각 1.8%, 1.1% 상승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곡물(22.4%), 유제품(11.0%), 육류(0.8%), 유제품(13.4%) 등 대부분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설탕 가격 지수는 140.8p로 전월(136.4p)보다 3.2% 올라 상승폭을 키웠다. 설탕 가격은 지난해 9월 162.7p까지 치솟은 뒤 이후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의 지속적인 강우량 저조로 생산 차질이 우려되면서 국제 설탕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인도에서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달러 대비 브라질 헤알화 약세가 그나마 상승폭을 완화했다.

FAO는 2023~2024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8억3950만t으로 2022~2023년도 대비 1.1%(3040만t) 증가할 것으로 전



망했다. 2023~2024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억2310만t으로 2022~2023년도 대비 1.1%(3130만t)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오유나기자

## 제조업 등 '인력난'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 올해 1월 신청접수 이후 한 달 만에 지원 인원 40% 넘어서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23.10.1~24.9.30 기간 중 채용을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반드시 1인 이상 중소기업 채용을 추진하고 취업한 청년의 고용직자를 포함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23.10.1~24.9.30 기간 중 채용을 한 반월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15세~54세 대한민국 국민)
  - 지원대상 청년(2023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대상)
- 지원대상**
  - 반월자리 채용의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 (반월자리, 호산업, 휴먼서비스 등 제조업, 농업, 임업, 수산업 등)
  -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취업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지원금액**
  -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을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 대상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지원방법**
  - 청년 근로자의 취업신청에 따른 신청서 접수
  - 일선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지역별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청년의 취업 증명서 제출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청년의 취업 증명서 제출
- 신청일시**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지역별 센터) 신청(2024.1.22.까지)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지역별 센터) 신청(2024.1.22.까지)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지역별 센터) 신청(2024.1.22.까지)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한 '반월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용 청년지원금' 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22일 일자리채용 청년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한 달 만에

신청자 수가 올해 총 지원 인원(2만4800명)의 40%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채용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제조업 등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다.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청년이 직접 고용24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499억원을 편성했으며, 청년 2만48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청년에게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등 맞춤형 홍보로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현욱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일자리채용 청년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 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쿠쿠홈시스, '작고 강한 핸디청소기' 파워클론 미니 출시

### 520g 초경량 핸디 청소기...손목 부담 줄여



종합 건강 생활가전 기업 쿠쿠홈시스가 520g의 초경량 핸디 청소기 파워클론 미니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파워클론 미니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150W BLDC 모터에서 나오는 최대 1만 7000Pa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무거운 이물질

부터 청소가 어려운 소파 틈, 차량용 매트 위 먼지까지 제거한다. 500ml 생수 1통보다 가벼운 520g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부담이 적다.

쿠쿠홈시스는 실내의 다양한 곳에서 3way로 활용 가능한 브러시(틈새·더스팅)도 제공한다. 틈새 흡입구 브러시를 장착할 경우 창틀과 컴퓨터 키보드, 소파 및 자동차 시트 틈새 등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더스팅 브러시로는 블라인드와 차량 카펫에 쌓여 있는 먼지나 부스러기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밖에 초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는 강력한 3단계 필터링 시스템과 배출된 공기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배기 구조를 채택했다. 금속망 필터와 먼지통은 물로 세척할 수 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강력한 흡입력과 함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파워클론 미니는 좁은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 쌓여있는 먼지를 간단히 청소하기에 적격"이라고 소개했다.

이슬비기자



## 청호나이스,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주목

청호나이스가 집실 매트리스를 미세먼지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8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는 미국 홈 케어 브랜드 컴비사의 전문 장비를 갖춘 케어마스터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친환경 살균 공법으로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다.

청호나이스의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는 ▲오염도 측정 ▲프레임 케어 및 위생 ▲매트리스 사이드 케어 ▲매트리스 바디 케어 ▲진드기 기피제 코팅 ▲UV스틱살균 등 총 7단계로 진행된다. 매트리스 전면, 후면, 측면을 꼼꼼하게

점검해 미세먼지 오염 걱정을 덜어준다.

해당 서비스는 청호나이스 매트리스 렌탈 구매 고객은 물론 타사 매트리스 고객도 받을 수 있다. 헬스 컨슈머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관심을 끌면서 2월 상담 문의는 전월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봄철에는 황사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집안으로 꽃가루와 각종 미세먼지가 묻어 온다"며 "청호나이스의 꼼꼼한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통해 미세먼지와 집먼지 진드기까지 한 번에 해결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 노동계, 선거 앞두고 '주4일 법제화' 띄웠다...실현 가능성은?

### 양대노동 중심으로 '주4일제' 총선공약 채택 요구

노동계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과로사회와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주4일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호응하고 직장인들의 과반이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법제화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시간 노동 벗어나야'...직장인 67.3%, 주4일제 '찬성'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주4일 네트워킹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주4일제 제도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공론화시켰다.

이 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일하는시민연대·유니온센터, 청년유니온 등이 모인 범 노동·시민단체 연합체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터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한 사회와 일터를 실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4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주4일제 법제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양대노동의 또 다른 축인 전국민

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제22대 총선 요구안으로 '주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을 내거는 등 노동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장인들의 호응도 좋다. 일하는시민연대 구소가 올해 1월14일부터 16일까지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67.3%에 달했다. 연차 휴가 확대는 74.3%, 퇴근 후 연락을 하지 않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76.5%가 동의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실시된 주4일제 실험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영향도 받았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취업자의 1%인 2500여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4일제 실험을 했다. 1주 37시간 근무형태는 유지하고, 1일의 미출근 근무시간은 다른 날 근무하는 형태다.

이 밖에도 영국, 스페인, 미국 등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 포스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패밀리데이'라는 명칭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생산성 높아지고 긍정적이지만...임금 보전·양극화는 '과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연으로 환산하면 1874시간이다. 이는 10년 전 2071.2시간에서 약 200시간이 줄어든 수치이며 역대 처음으로 연 1800시간대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OECD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5개국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가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110.2였다.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OECD 기준으로 놓고 보면 37개국 중 그리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다음인 33위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17년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그 시사점이 뚜렷하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OECD 회원국 35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를 살펴 보면,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종사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약 1.5%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변용일기자